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4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 현대시

(가) 「신선 재곤이」 서정주

작품 평가

『질마재 신화』라는 제목의 시집에 실린 작품으로, 서사적 구성을 보여 주는 이야기시이기에 한 편의 동화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인물을 포용하고 그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옛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신화적 상상력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토막 1 앓은뱅이 사내 재곤이

땅 우(=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在坤)’[→ 있을 재(在), 땅 곤(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앓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힘겨운 처지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찌고] 광주리도 절었지마는,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앓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 몸이 성한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와 포용을 잃지 않았던 옛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별을 먼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세 끼니의 밥과 치위(=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마을의 인심과 하늘의 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옛사람들의 선한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다.

토막 2 재곤이의 죽음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의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재곤이의 죽음을 암시한다.]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 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무거운 모습만이 산 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살아생전 고생스럽던 그의 모습이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재곤이를 잘 돌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서 선하고 순박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다.

토막 3 신선이 된 재곤이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별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탄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神仙道)에도 약간 알음이 있다는[→ 신선도에 대해 지식이 좀 있다는] 좋은 흰 수염의[→ 보기 좋은 흰 수염을 기린] 조 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 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천 년은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돌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여…….”

▶ 걱정과는 달리 마을에 아무 탈도 생기지 않자, 마을의 덕망 있는 어른이 재곤이는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재곤이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뿔돌을 단단히 매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 재곤이의 죽음을 거북이를 닮았던 그의 모습과 관련해 생각하고 있는 게다. 거북이는 바다에 사니까.]던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 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사 옳다.”고 하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 조 선달 영감이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 그동안 걱정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생각이 바뀌어 재곤이가 하늘의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에 모두 동의하게 된다.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게 되었기에 재곤이는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 고달픈 삶을 살았던 재곤이가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는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 의미로 수용하는 옛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이해와 감상

- 1 신화적인 상상력이 우주를 창조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등의 거창한 사건들과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힘없는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신화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일에 상상력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게다.
- 2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을 집단과 분리해 사고하고 이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만을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현대 시인들은, 그러한 태도로 인해 인간의 정신적 혼란과 자연 파괴 등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 시는 ‘질마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신화적인 세계관이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5~9] 과학

초유체로의 상전이 임계 조건

지문 평가

초유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초유체로의 상전이 임계 조건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인 글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의식하면서 각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수월했을 테고, 그렇지 못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테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양자역학 - BEC

유체, 점성, 초유체, 크리프 현상, 스핀, 페르미온, 보손, 보스-아인슈타인 응축(BEC), 물질파, 드브로이 파장, 운동량, 밀도, 에너지 준위, 바닥상태, 열전도도, 파울리의 배타 원리, 쿠퍼쌍

문단 1 초유체

1) 변형이 쉽고 흐르는 성질을 갖는 물질인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 한다. 유체가 흐를 때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자 끈끈한 성질을 **점성**이라 하며, 이는 입자들 간의 마찰에 기인한다.

➡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 간의 마찰이 클수록, 그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도 커진다.

2) 그런데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인 영하 273도, 즉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에서는 특정 종류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유체가 '초유체'로 바뀌는 상전이가 일어난다. **초유체**는 입자의 양자 역학적 양상으로 인해 점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을 말한다.

➡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 특정 '유체'가 점성을 완전히 잃어 '초유체'로 상전이는 경우가 있다. 마치 입자들 간의 마찰이 사라진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데……

❗ **주목** 앞으로는 초유체로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조건들에 주목해야겠다. 일단 '극저온 상태'라는 조건 챙겨 두자.

3) 초유체는 너무나 잘 흘러서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서 벽을 타고 넘어 바깥으로 새어 나가는 **크리프 현상**을 보인다. 또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초유체의 흐름은 접촉되어 있는 용기의 운동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 2)에서 살펴본 '초유체'의 정의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 **참고** 벽을 타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벽을 이루는 분자들이 끌어당기는 인력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점성이 매우 낮은 기체들이 용기의 벽을 타고 넘어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액체의 경우 매우 가는 관인 모세관에 서만 벽을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문단 2 입자의 양자 역학적 특성

1) 양자 역학에 따르면 입자는 **고유한 운동량인 스핀**을 지니는데, 1/2, 3/2 등과 같이 **반(半)정수**의 스핀값을 갖는 입자인 **페르미온**과 1, 2 등과 같이 정수의 스핀값을 갖는 입자인 **보손**으로 나뉜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이 페르미온에 속하고 광자나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의 동위 원소(=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 중 일부 등은 보손에 속한다.

➡ 여기서 '스핀'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스핀 : 입자의 고유한 운동량	
페르미온	보손
반(半)정수의 스핀값	정수의 스핀값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광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 등

2) 초유체로의 상전이는 보스의 관련 연구를 근거로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예측해 본 양상, 즉 보손들이 중첩되는 양상인 **보스-아인슈타인 응축(BEC)**에 의해 일어난다.

➡ 초유체로의 상전이는 BEC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중첩'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 **주목** 초유체로의 상전이의 또 다른 조건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페르미온'이 아니라 '보손'이어야 하나 보다.

문단 3 보스-아인슈타인 응축(BEC)

1) BEC는 입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물질파**라는 파동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질량이 큰** 거시적인 크기의 물체들은 물질파의 파장인 **드브로이 파장**이 워낙 작아서 파동의 성질이 유의미하지 않고 위치가 확정적이지만, ……

➡ '보손'이든 '페르미온'이든 '농구공'이든 모든 물체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 물론 우리는 농구공의 파동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것의 드브로이 파장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 이는 드브로이 파장은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물체들은 파동의 성질을 가짐에도, 파장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 **참고** 드브로이 파장 λ 는 h/mv 와 같다. 질량 m 에 속도 v 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고, h 는 플랑크 상수이다. 플랑크 상수는 대략 말하면, 에너지가 연속된 값의 변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형태로 전달됨을 보여 주는 상수이다.

2) …… **미시 세계**의 매우 작은 입자들은 자신의 크기보다도 드브로이 파장이 더 크며 드브로이 파장이 클수록 위치가 불확정적이다.

➡ 반면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유의미한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즉 이 경우의 '드브로이 파장'은 유의미하게 크다.

3) 드브로이 파장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속도는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다. 온도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므로,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들의 속도가 느린 것이다.

➡ 한마디로 드브로이 파장은 '질량'이 작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그리고 드브로이 파장이 클수록 입자들의 위치는 불확정적이게 된다.

질량 ↓ ⇒ 운동량 ↓ ⇒ 드브로이 파장 ↑
온도 ↓ ⇒ 운동량 ↓ ⇒ 드브로이 파장 ↑

➡ 결국 문단(2)의 조건인 '극저온 상태'는 드브로이 파장이 상당히 커지는 상태와 동치인 셈이다. 이는 곧 초유체로의 상전이가 일어나려면 드브로이 파장이 특정한 값 이상으로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4) 보손으로 이루어진 계에서 **밀도**를 높여 보손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하자. 그 상태에서 온도마저 내려가면 보손들의 속도가 느

려지면서 드브로이 파장이 커지는데 보손 간의 거리보다 드브로이 파장이 더 커지면 보손들이 중첩되면서 BEC가 발생한다.

❗ **주목** 초유체로의 상전이가 일어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다. 지금까지 정리했던 조건들을 적용해 가며 읽어야겠다.

조건 ①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보손이다.[문단2-2]]

조건 ② 밀도가 높아서 보손 간의 거리가 가깝다.[문단3-4]]

조건 ③ 온도가 내려가서 극저온 상태가 된다.[문단1-2]]



보손 간의 거리보다 드브로이 파장이 더 커진다.



보손들이 중첩되어 초유체로의 상전이가 일어난다.

문단 4 초유체의 특성

1) 정량적 계산의 결과에 의하면 초유체로의 상전이 임계 조건은 ' $\rho\lambda^3 > 2.6$ '으로, 여기서 ρ 는 입자의 단위 부피당 밀도, λ 는 드브로이 파장이다.

➡ 문단3-4)의 정리를 이해하였다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임계 조건을 충족하려면 ρ 와 λ 모두 충분히 커져야 하는데, 이는 위의 정리에서 각각 조건 ②, ③에 대응한다.

2) 이러한 임계 조건을 넘어서면 보손들은 모두 입자가 갖는 에너지값인 **에너지 준위**가 가장 안정된 상태인 **바닥상태**로 몰려들어 파동이 겹쳐진다. 보손들은 물질파의 위상마저 모두 같아서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중첩되며 하나의 입자인 것처럼 거동한다.

➡ 문단2-2)에 대한 상술이다. 보손은 [페르미온과 달리] 물질파의 위상이 같아서 1)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중첩될 수 있다. 그로 인해……

➡ …… '하나의 입자인 것처럼 거동'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겠다. 하나의 유체가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하자. 임계 조건을 넘어서면 이들이 전부 중첩되어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3) 마찰은 입자 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렇게 수많은 입자가 하나의 입자처럼 거동하면 점성이 사라진다. 또한 열 역시 입자 간에 전달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정도인 **'열전도도'**도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 애당초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는 마찰도, 열전달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초유체는 문단과 같은 기이한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거다.

문단 5 쿠퍼쌍의 초유체로의 상전이

1) 이와 달리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진 초유체는 존재할 수 없다. 보손과 달리 동일한 위상의 페르미온들은 같은 위치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파울리의 배타 원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 '파울리의 배타 원리'에 의해 페르미온들은 중첩될 수 없기 때문에, 문단 3-4)에서 정리한 조건 ①이 필요했던 거다. 달리 말하면 보손은 '파울리의 배타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중첩될 수 있다.

2) 그런데 두 개의 페르미온이 하나의 입자로 결합되어 **쿠퍼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쿠퍼쌍은 정수배의 스핀값을 갖는 보손에 해당하여 '파울리의 배타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쿠퍼쌍을 입자로 하는 물질은 초유체로 상전이를 할 수 있다.

➡ 이걸 좀 특이하다. 어떤 경우에는 페르미온들이 결합하여 쿠퍼쌍을 이룰 수도 있다. 이 경우 쿠퍼쌍은 보손에 해당하여 조건 ①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즉 초유체로의 상전이가 가능해진다.

❗ **주목** 이를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진 초유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서술로 오

해하면 곤란하다. 1)의 서술과도 정면충돌하지만, 무엇보다도 페르미온들이 쿠퍼쌍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페르미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 ①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보손이다.[문단2-2]]

↳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원래 보손이거나, 페르미온들이 결합하여 쿠퍼쌍을 이뤄 보손이 된다.

조건 ② 밀도가 높아서 보손 간의 거리가 가깝다.[문단3-4]]

조건 ③ 온도가 내려가서 극저온 상태가 된다.[문단1-2]]



보손 간의 거리보다 드브로이 파장이 더 커진다.



보손들이 중첩되어 초유체로의 상전이가 일어난다.

이강

고려의 토지 제도와 개혁론

지문 평가

(가)에서는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에서는 다양한 사상가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개념들 간의 층위를 잘 구분해 나가면서 읽는 요령이, (나)에서는 관점들 간의 관계를 짜임새 있게 정리해 나가면서 읽는 요령이 필요하겠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한국사 - 토지 제도

전시과, 수조권, 전주, 민전, 공전, 사전, 면조권, 수전수전제, 공음전, 수조지 겸병, 소유권 겸병, 병작제

(나) 인문 - 동양 철학 - 개혁론

신진 사대부, 사전 개혁론자, 사전 혁파론자, 조준, 과전법, 사전기내, 정도전, 계민 수전제, 정전제

문단 (가)-1 토지 제도와 조세 징수의 중요성

1)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실현되고 그에 기초한 조세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 재정은 건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대개 문란해진 토지 제도로 인해 지배층의 횡포가 격화되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곤 했다.

➡ 토지 제도와 조세 징수라는 중심 화제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국민이 만족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2) 멸망에 이른 고려 말기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① **맥락 짚기** 중심 화제의 폭을 좁혀 주는 진술이다. 고려 말기의 토지 제도와 조세 징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독해를 이어 나가자.

문단 (가)-2 고려의 전시과와 수조권

1) 경종 때 제정된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문무 양반이나 지방 관리인 향리, 군인들, 혹은 사원(寺院)과 같은 사적 기관에 수조권을 분급하는 제도였다. 수조권은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 '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관직 등에 종사하는 이에게 국가가 녹봉 대신 지급한 것이다.

➡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쉽게 말해서 수조권을 개인 또는 사적 기관에 나눠 주는 제도인 셈이다.

2) 수조권 분급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국유지도 있었으나 사유지가 많았다.

① **주목** 중요하다. 국유지는 물론이고 사유지 역시 수조권 분급의 대상이 된다. 즉 A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조'를 걷을 권리를 B에게 나눠 줄 수도 있다는 거다.

3) 수조권을 가진 이를 전주라 하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사유지인 민전에 농사를 지어 수확량의 1/10을 조로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가 대신에 전주에게 납부하였다.

➡ '민전'을 경작하는 백성은 국가, 혹은 전주에게 조를 납부해야 한다. 바뀌

말해 백성이 전주에게 조를 납부할 경우, 그만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이때 왕실의 어료지나 관청의 공해전처럼 국가에 조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를 '공전', 양반전이나 군인호정, 사원전 등 전주에게 조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를 '사전'이라 일컫는다. [사유지인] 민전은 조를 누가 거둬들이느냐에 따라 사전일 수도, 공전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① **맥락 짚기** 헛갈리기 쉬운데, 공전, 사전은 국유지 및 사유지와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개념이다.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

➡ 국유지의 경우 국가가 소유한 토지이지만 수조권을 분급하였다면 전주가 '조'를 걷을 수 있는 만큼 사전이 된다. 물론 수조권을 분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전이겠다. 민전을 포함한 사유지의 경우 마찬가지로 수조권을 누군가에게 분급하였다면 사전, 그렇지 않았다면 공전에 속한다.

공전	사전
국가에 조를 납부 어료지, 공해전	전주에게 조를 납부 양반전, 군인호정, 사원전

5) 양반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수조권을 갖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를 면제받는 권리인 면조권을 전주가 갖는 셈이었다.

➡ 양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유지에서 얻어진 소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수조권이 있을 경우 국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조를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납부할 조를 면제받는 셈이 되며, 물론 그만큼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문단 (가)-3 전시과의 폐단

1) 통일 신라 당시의 사유지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된 전시과는, 원칙적으로 전주가 관직이나 군역을 마치면 수조권을 반납하는 '수전수전제(受田授田制)'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 '수전수전제'는 전시과의 전제가 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수조권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반납되는 권리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든 그 수조권은 다시 반납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A'에 대한 수조권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날로 관직을 마치고 수조권을 반납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조'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2) 그러나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처럼 수조권의 세습이 허용되는 토지도 있었다. 또한 무신의 난과 몽고와의 전란을 거치면서 국가가 사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권세가들은 불법적인 사전 세습과 ……

➡ 정당한 세습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불법적인 세습이 문제가 되는 거다.

3) …… '수조지 겸병'을 자행하였다. 수조지 겸병은 수조권을 주변으로 확대해 가는 것인데, 그 결과 한 토지에서의 수조권자[→ 전주]가 8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 '수조지 겸병'은 자신이 수조권을 갖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수조권을 주장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토지의 주인은 전주 각각에게 수확량의 1/10을 납부해야 하므로[문단2-3], 전주가 8명이라면 백성 입장에서 8/10을 뜯겨야 한다. 그만큼 백성의 조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거다.

4) 이렇게 조의 부담이 가중되자 민전의 소유권을 내놓는 백성들이 늘었고, 소유권을 확보하며 자신의 땅을 늘리는 '소유권 겸병'이 권세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 조세 부담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아예 토지의 소유권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원래 백성의 사유지였던 민전이 권세가들의 소유가 되는 '소유권 겸병'이 나타난 거다.

5) 남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병작제** 하에서는 수확량의 절반을 소유권자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민전의 소유권을 잃은 백성들은 점점 더 곤궁해져 갔고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 ➡ 일단 개념부터 챙기자. '병작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 ➡ 사유지에서 조를 납부하면 원칙적으로는 수확량의 1/10만 납부하면 되는 데[문단2-3], 소유권을 잃은 후에는 수확량의 5/10를 납부해야 했다. 백성들로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건 수조지 겸병의 파급 효과이기도 하다.

6) 한편 수조지 겸병은 주로 공전이 줄고 사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국가 재정의 악화도 가져왔다.

- ➡ 수조지 겸병의 또 다른 폐단이다. 공전이 줄고 사전이 확대되면 국가가 거둬 조를 전주가 대신 챙기는 셈이 때문이다.
- ➡ 여기까지, 수조지 겸병과 소유권 겸병의 개념과 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가자.

수조지 겸병	소유권 겸병
수조권을 주변으로 확대 백성들의 조세 부담 가중 공전 ↓, 사전 ↑ ⇒ 국가 재정 악화	권세자들이 민전 소유권 확보 수확량의 절반이 소유권자의 몫 백성들의 곤궁 심화

문단 (가)-4 고려 말의 현실

고려 말의 권세가들은 토지 제도의 빈틈[→ 전시과의 폐단]을 이용해 수조지 겸병과 소유권 겸병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낼 세금까지 떠안게 되어 백성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백성의 삶이 흔들리자 고려는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 ➡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은 이러한 전시과의 폐단을 어떻게 바로잡으려 했는지 궁금해진다.

문단 (나)-1 신진 사대부의 개혁 의지

1) 고려 말 전시과의 문란으로 사전의 폐단이 나타나고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자 충선왕부터 공민왕 때까지 **사전 개혁**이 있었다. 그러나 수조권의 재조정, 소유권 겸병의 혁파와 같이 **질적인 시정** 방안엔 이르지 못하고, 토지 분쟁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 ➡ 전시과의 폐단에 대한 개혁의 내용이다. 고려가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던 모양이다.
- ❗ **주목** 그러나 (가)에서 확인했듯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수조지 겸병과 소유권 겸병에 있었다. 이 둘을 시정하지 않는 한, 안타깝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 이는 당시에 새롭게 정계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의 개혁 의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 **백락 짚기** '신진 사대부'가 생각했던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가 보자.

문단 (나)-2 사전 개혁론자와 사전 혁파론자

1) 이제현, 이색 등의 신진 사대부는 과중한 세금 수취와 수조지 겸병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토지 개혁을 주장해 왔다.

- ➡ 즉 신진 사대부는 전시과의 근본적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다.

2) 이후 신진 사대부들의 입지가 보다 강화되는 사건인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신진 사대부들의 입장은 양분되었다.

- ❗ **백락 짚기** 관점 요소가 세분화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신진 사대부의 두 가지 관점을 하나씩 짚어 볼 준비를 하자.

3) **사전 개혁론자**들은 이색의 입장을 이어받아 토지에 하나의 전주만이 있도록 하는 일전일주의 원칙을 다시 세움으로써 수조지 겸병의 문제를 해소하자고 주장하였다.

- ➡ '사전 개혁론자'들은 일전일주, 즉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전주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의 전주가 있게 되는 폐해를 야기하는 수조지 겸병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뜻이다[(가)의 문단 3-3].

4) 반면 **조준, 정도전 등 사전 혁파론자**들은 기존의 사전을 일거에 폐지하고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 ➡ '사전 혁파론자'들은 기존의 사전을 폐지하고 재분배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애초에 각 전주의 정당한 수조권 자체를 건드리지 않은 '사전 개혁론자'에 비하면 좀 더 급진적인 입장으로 봐야겠다.
- ➡ 두 관점의 대조 지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신진 사대부	
사전 개혁론자	사전 혁파론자
이색 일전일주의 원칙 강조	조준, 정도전 기존의 사전 폐지 → 재분배

문단 (나)-3 조준의 개혁 지향

1) 그런데 [사전 혁파론자인] 조준과 정도전 사이에서도 개혁의 지향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 ❗ **백락 짚기** 사전 혁파론자들의 관점이 다시 한번 세부 관점들로 나뉘고 있다. 이번에는 '조준'과 '정도전'의 관점을 차례로 짚어 보자.

2) **조준**은 사전을 혁파하고 토지마다 수조권을 새로이 분급한 후에 '수전수전제'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 ➡ 먼저 '조준'의 관점이다. 이는 물론 불법적인 사전 세습을 막기 위함이었다.

3) 조준의 안은 공양왕 때 **과전법**의 법제화로 구현되었다. 과전법은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해 공전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 ➡ '과전법'은 조준의 관점이 반영된 제도다. 수조권이 제때 반납되면 공전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그만큼 국가가 안정적으로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게다.

4) 과전법의 도입으로 **'사전기내(私田畿內)'**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 내의 토지만이 사전으로서 관료들에게 벼슬의 지위에 따라 차등 분급되었다. 또한 [소유권 겸병 등의 이유로] 침탈되었던 민전의 소유권을 백성들이 다시 돌려받도록 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도 건실해지도록 도모하였다.

- ➡ '사전기내'는 사전의 규모를 제한한 원칙이다. 즉 수조지 겸병을 막는 역할을 했겠다.

- ❗ **주목** 사실 조준의 관점을 사전 제도 자체에 대한 혁파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사전을 혁파하고 새롭게 사전 제도를 잘 시행해 보자는 얘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전법' 역시 현실적으로 실패한 '전시과'를 잘 시행해 보자는 것에 가깝다.

문단 (나)-4 정도전의 개혁 지향

1) 이러한 과전법은 **정도전**의 이상에 못 미치는 제도였다. 그는 수조

지 침탈도 문제지만 소유권 겸병으로 인한 소유지 침탈과 이에 따른 병작제의 확대가 백성과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 ➡ '정도전'은 소유권 겸병을 수조지 겸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병작제를 비판했다. 한마디로 수조지 침탈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가와 백성이 곤궁함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거다.
- ➡ 물론 조준의 관점이 반영된 과전법도 민전의 소유권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등 관련된 노력을 하기는 했다[문단3-4]. 다만 그를 통해 소유권 겸병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병작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본 것이겠다.

2) 그래서 그는 사전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를 몰수한 후에 가구별로 토지를 분급하는 「계민수전제(計民授田制)」를 통해 사전 제도뿐 아니라 병작제까지도 폐지하길 원했다.

- ➡ 정도전이 주장한 '계민수전제'의 내용이다. 조준 역시 사전 혁파론자로서 기존의 사전을 폐지하고 재분배하자는 데까지는 동의한다[문단2-4]. 정도전은 더 나아가 아예 사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다. 즉 모든 조세는 국가가 거두어들리게 된다.
- ➡ 여기서 토지를 몰수하고 재분배한다는 건,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릴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병작제도 폐지되는 결과가 나온다.

문단 (나)-5 개혁론으로서의 정전제

1) 계민수전제는 모든 토지에 대한 국유화(=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함)를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 즉 백성들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받은 후 공유지에서 공동 경작한 수확물만 세금으로 내는 정전제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보고, 그것과 비슷한 안들을 모색하였다.

- ➡ '정전제'는 정도전이 이상적으로 본 제도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시행되었다고 당대까지 알려져 있던 제도다.
- ❗ **주목** '조준'의 안이 반영된 과전법이 실질적으로 사전 제도를 유지하였다면 '정도전'의 안은 아예 사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급진적이다.

2)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정도전이 꿈꾸었던 모습은 학자들의 개혁론으로 자주 언급되었을 뿐 현실에 구현되지는 못했다.

- ➡ 여기까지, 조준과 정도전의 관점을 정리해 보며 마무리하자.

사전 혁파론자	
조준	정도전
수조지 겸병에 주목 수전수전제 강조 사전기내의 원칙	소유권 겸병에 주목 계민수전제 주장 사전 제도 및 병작제 폐지

[16~20] 고전시가

(가) 「율리유곡」 김광옥

수록 지문 평가

김광옥은 광해군 재위 시에 인목 대비 폐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관직에서 쫓겨났다. 그는 이후 인조반정으로 관직을 되찾아 중앙 정계로 돌아왔는데, 이 작품은 그가 그 관직 석탈과 회복 사이의 시기에 고향인 율리 [→ 지금의 경기도 행주]에 은거할 때 지은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은거가 도연명 [→ 중국 남북조 시대 동진 말기의 혼란 속에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한 시인의 은거를 본받았노라 말하면서 전원에서의 소박하고 한가로운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제 1곡 나=도연명

도연명(陶淵明) 주군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단 말가

→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도연명이 태어났단 말인가?

밤막을 벗 일흠이 마초와 굿틀시고

→ 밤마을 벗 이름이 마침 또 같구나.

- ➡ 도연명이 은거했던 마을 이름과 내가 은거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 마침 똑같이 밤마을 [→ 율리(栗里)]이라는 거다.

도라와 수줄 전원(守拙田園, 세상살이에 서툰 자신의 분수를 지켜 전원에는 거함)이야 괴오

- ➡ 요컨대, 은거한 마을 이름도 같고 혼란한 시대를 등지고 은거를 택한 마음 가짐도 같으니, 자신이 도연명 같은 사람 아니겠느냐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참고] '수줄 전원'은 세상을 등지고 강호에 은거하는 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수줄(守拙)'은 그릇되거나 모자란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릇된 세상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고매한 삶의 태도를 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2곡 속세를 버린 무아지경

공명(功名)도 이젓노라 부귀(富貴)도 이젓노라

세상 번우(煩憂, 번거롭고 근심스러움) 흔 일 다 [남에게] 주어 이젓노라

내 몸을 내마져 이즈니 [→ 몰아(沒我), 무아(無我)의 경지] 남이 아니 이즈라

- ➡ 세상의 공명과 부귀 그리고 번우한 일에도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다. '남이 아니 이즈라'는 남들도 다 나를 잊었을 것이라는 건데, 어쩌면 광해군 재위 말기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더 이상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겠다.

제 4곡 자연에 대한 사랑

강산 한아(閑雅, 한가롭고 우아함) 흔 풍경 다 주어 맛타 이서

→ 강산의 한가롭고 우아한 풍경 다 주어 맡아 있어

- ➡ 의미 맥락으로 보아 조물(造物)이 화자에게 강산의 한가로운 풍경을 다 주어서 화자가 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화자 스스로 강산을 찾아 은거한 것 이면서도 마치 조물이 자신에게 이를 맡긴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내 혼자 임자이니 뉘라서 다들쏘니

→ 나 혼자 임자이니 뉘라서 [나와] 다들쏘냐.

- ➡ 강산의 임자가 나 혼자밖에 없으니, 이 강산을 놓고 나와 다들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자연에 은거하며 느끼는 만족감이 잘 드러나 있다.

남이야 심술궂다 녀긴들 나뉘 볼 줄 이시랴

→ 남이야 심술궂다 여긴들 나뉘 볼 줄 있으랴.

▶ '강산 한아흔 풍경'을 혼자만 누리는 화자를 심술궂다고 욕할 사람이 혹 있다 해도, 개의치 않고 혼자서만 즐기겠다는 것이다. 사실 자연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마음껏 누린다 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을 탐욕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강조하기 위해 짐짓 이렇게 말해 본 것이라 하겠다.

제 10곡 벼슬에서 벗어난 시원함

헛글고 싣근(=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문서(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후리치고
▶ '문서'는 관직에 있으면서 하는 일을 나타내는 시어이겠다. 그 '문서'를 다 남에게 주어 내던져 버렸다는 것은 관직을 버렸다는 말이다. 지난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과 환멸이 묻어난다.
필마(匹馬) 추풍(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 낙향(落鄉)했다는 거다. 말에 채찍질을 했다는 것에서, 한시라도 빨리 서울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모리 매인 새 놓이다 이대도록(=이토록) 시원하라
→ 아무리 매인 새가 놓여났다 해도 이토록 시원하라.
▶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가슴이 시원하다는 것이다. 묶여 있던 풀려난 새가 느낄 시원함과 관직을 버린 자신의 시원함을 비교하고 있다.

제 15곡 아름다운 자연에 몰입됨

세버들(=가지가 매우 가는 버드나무) 가지 것거 낚은 고기 췌여 들고
→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 한가롭고 욕심 부리지 않는 소박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주가(酒家)를 츠즈려 단교(斷橋, 중간이 끊어진 다리)로 건너가니
→ 술집을 찾으려 단교(→ 낚은 다리)로 건너가니
그 골에 행화(杏花, 살구꽃) 날리니 아무덴 줄 몰라라
→ 그 골쪽에 살구꽃 날리니 아무덴 줄 몰라라.
▶ 살구꽃이 날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건지 잊었다는 말이겠다. 길을 잃고 어딘지 몰라서 막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에 취해서 그만 세속을 잊어버린 경지를 노래한 것이라 하겠다.

[21~26] 사회

상속의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지문 평가

공동 상속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상속분을 보장하려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상속분이 결정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각각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주목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법학 지문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상속 제도

상속권,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증여, 유언, 상속인, 피상속인, 유류분 제도, 공동 상속인, 상속분, 법정 상속분, 유류분액, 유류분 비율, 유류분 반환 청구권, 기초 재산, 기여분

문단 1 상속권과 유류분 제도

- 1) 상속받을 권리인 **상속권**은 자녀나 손자와 같은 **직계 비속**이 있을 때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만 가지며, 직계 비속이 없을 때에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만 갖는다. 형제자매는 이들 모두가 없을 때에 갖는다.
▶ 순위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하겠다. 결국 형제자매들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가 전부 없을 때만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상속권의 순위>

-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2) 다만 개인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사망 후의 상속에 대해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지정할 수도 있다.
▶ 1)의 원칙과 별개로 생전의 증여,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때 '타인'은 물론 직계 비속일 수도, 직계 존속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형제자매일 수도, 혹은 제3자일 수도 있다.
▶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사적 자치의 원리'란 정해진 원칙과는 별개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원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 3)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상속권을 지닌자인 **상속인** 중의 일부나 제3자에게만 상당량이 상속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 '사적 자치의 원리'를 마냥 존중하다가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4) 그래서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지라도[→ 2)처럼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마음대로 재산을 넘기더라도] 상속인이 일정량을 보장받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한마디로 '유류분 제도'는 1)에서 규정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겠다.

문단 2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액

1) 상속인이 여럿일 때 전체 상속액 중 이들 **공동 상속인** 각각이 받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유언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분**을 따른다.

➡ 바꿔 말해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2) 이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들의 분배 비율은 균등하게 하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배우자에게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할당한다. 예컨대 상속액이 3억 5천만 원이고 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면 자녀는 각각 1억 원씩,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을 할당받는다.

➡ 이렇게 '두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1:1.5의 비율로 법정 상속분이 할당된다. 물론 법정 상속분이 그만큼 유언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다.

3) 유류분을 통한 보장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하거나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비율로 산정한 액수인 **유류분액**조차 할당받지 못할 때에 이루어진다.

① **맥락 짚기** 전형적인 법률 지문의 전개 방식이다. 개념들 간의 분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야겠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특히 ③의 내용 파악에 집중해야겠다.

- ① 증여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름
- ② 증여나 유언이 있는 경우 +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액 이상으로 할당 받음: 유언의 내용에 따름
- ③ 증여나 유언이 있는 경우 + 어떤 상속인이 유류분액조차 할당받지 못함: 유류분을 통한 보장

4)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로 정해진다. 법정 상속분이 1/5인 직계 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1/10인 것이다.

➡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에 연동되어 있다. 즉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단순히 '1/2'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5) 유류분액만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이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저절로 유류분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이'의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이체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문단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기초 재산**이 결정되어야 한다. 기초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서 상속될 채무를 차감하고 이미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것이다.

➡ 일단 정리하고 가자.

기초 재산 =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 상속될 채무 + 이미 증여한 재산

2) 이때 [기초 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산되는 증여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정되지만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시킨다.

➡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이미 증여한 재산'의 기준은 증여받은 이가 **공동 상속인**인지, 그렇지 않은 제3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다.

3)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기초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서 상속 채무 분담액을 빼고 자신이 받은 증여액을 더한 것이 유류분액에 못 미치면 유류분 부족에 해당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① **주목**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개념들을 그대로 끌고 오자.

유류분액 = 기초 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액 >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 - 상속 채무 분담액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가진

유류분액 <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 - 상속 채무 분담액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가지 않음

4)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액을 받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을 많이 받은 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 청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사실상 문단2-5의 재진술이다. 이런 식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이'로부터 결과적으로 유류분액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 물론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유류분액 -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 - 상속 채무 분담액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 = 유류분 부족액

5) 다만 그 청구를 받은 자가 **공동 상속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유류분 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 상식적인 얘기다. 청구의 대상이 '공동 상속인'이라면 해당 '공동 상속인' 역시 유류분액만큼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 물론 청구의 대상이 공동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그는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액이 없으므로, 그는 반드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한다.

문단 4 기여분과 그 한계

1)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이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 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현행 상속법은 **재산 형성과 부양의 측면에서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고 있다. 공동 상속인이면 누구나 공동 상속인 중 기여자의 **기여분 산정**을 제외할 수 있고,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의 심판**을 따른다.

➡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있단다.

3) 기여분이 결정되면 [기초 재산 중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분배해야 하며,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적어도 재산 형성과 부양의 측면에서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기초 재산이 1억 원이고 상속인 A에게 기여분이 1천만 원만큼 할당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상속인들은 나머지 9천만 원으로 분배를 받으며, 설령 다른 상속인 B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A에게 행사하려 해도, A는 유류분액만큼은 물론, **기여분인 1천만 원만큼**도 함께 보장받는다는 얘기가.

4) 그러나 기여분의 결정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공동 상속인의 전원 합의, 가정 법원의 심판…… 타당한 지적이다.

5) 또한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기초 재산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유류분액들이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온전히 충당되지 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

▶ 사실상 이게 더 문제 같다. 상속액을 정할 때에는 기여분을 제외하지만, 유류분을 따질 때 활용되는 기초 재산에서는 기여분이 제외되지 않는다. 즉 기여분 때문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유류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다. 공동 상속인의 전원 합의로 결정된 기여분이라면 몰라도 가정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기여분이라면 더욱더 분쟁이 생길 법하다.

6) …… 기여분만큼을 차감하여 기초 재산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니 애초부터 기초 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하자는 거다. 당연히 공동 상속인들 모두의 유류분액 역시 줄어들 테고, 따라서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액만큼을 보장받지 못할 일도 없어질 테니 말이다.



[27~30] 현대소설

「광장」 최인훈

수록 지문 평가

시험을 앞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작품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사람이라면, 생각에 잠기게 하는 내용이 많음을 알 거다.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도 꼭 알아 두도록 하자.

[앞부분 줄거리]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껴 월북한 이명준은 은혜와 연인이 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임신한 채 전사하고, 포로로 잡힌 명준은 국경 끝에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오른다.

테이블에 펼쳐진 해도(=바다의 상태를 자세히 적어 넣은 항해용 지도) 위에 컴퍼스(=항공, 항해 따위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 지시 계기)가 던져져 있고,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마카오가 가까워 오자, 석방자들은 또다시 선장에게 상륙시켜 주도록 말해 보라고 그를 줄라 대기 시작했으나, 명준은 끝내 갈아 버리고 말았다. 그들[→ 석방자들] 얼굴에 새겨진 불만과 적의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쌓인 고달픔이 한꺼번에 뿔쳐드는지 어깨가 무겁고, 남하고 말 붙이기가 귀찮았다.[→ 명준의 심경이겠다.]

▶ 지금 명준과 석방자들은 제3국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후, 인도를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명준은 석방자들을 대표하는 통역 역할을 한다. 석방자들은 오랜 항해에 지쳐 도중에 육지에 상륙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마카오가 다가오자 상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명준은 석방자들의 의사를 선장 측에 전달하지 않는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을 굳이 호소해 볼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데다가 그 자리의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수긍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겠다.

[참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석방자들의 도중 상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석방자들은 말과 분위기로 명준을 압박하여 상륙 얘기를 꺼내도록 종용했다가 이미 한 번 명준과 시비가 붙었다.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 포로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이다.] 갈팡질팡 하던 일이 떠올랐다. 제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 명준의 과거 회상이다.

싸움[→ 전쟁]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는 말이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는 없었으나, 설령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명준이 한 생각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처럼, 명준의 생각이 인용 부호 없이 마치 인칭 서술자의 말처럼 직접 제시된 부분이 종종 나타난다.].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북녘 같은 데서 살붙이란 무엇이던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혈육이란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아무 까닭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 있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그 사

회 속의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의,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더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믿음 없이 절하는 것이 괴롭듯이, 믿음 없이 정치의 광장[→ 명준이 생각하는 북한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에 서는 것도 두렵다.

▶ 북한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명준이 전쟁이 끝난 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다. 명준은 북한에 돌아갈 이유가 없음을 가족, 연인, 신념의 순서로 짚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준은 개인을 묶어 주는 관계가 존재하거나, 개인이 믿을 만한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야 그 사회로 돌아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정치에 대한 신념도 모두 파괴당한 명준이 선택할 만한 사회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사실 세상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략)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 삶의 가능성, 삶의 여지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말로 보면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 이상화의 시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이다.]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자리에 서 있다. [→ 자신의 삶을 부채의 형태에 비유하고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 중립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는 이야기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 명준의 새로운 출발에 지장이 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다는 말이다.]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 두 마리 새들을 알아본 이후 명준의 인식과 삶이 달라졌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 은혜]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 은혜와 명준의 딸]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 은혜]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 두 마리 새, 즉 은혜와 딸]의 사랑을.

▶ 명준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채의 형태에 빗대어 바라보고 있다. 부채의 바깥쪽인 넓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점점 부채의 안쪽인 좁은 부분으로 이동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한계점인 부채의 사복에 이르렀다. 사복 자리는 부채살이 모여 교차하는 한 지점으로, 사복 자리를 지나면 부채는 다시 조금 넓어진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 이내 부채는 끝나 버리고 만다. 이것은 제3국이라는 선택이 지닌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3국은 마치 삶의 전환점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한계가 뚜렷한 선택인 것이다.

참고 지문에 인용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는 사랑과 생명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이해하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문에 인용된 시 구절 바로 앞 구절이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내야 알련만…….'이라는 점 정도를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돌아서서 마스트(= 돛대)를 올라다본다. 그들[→ 두 마리 새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 큰 새와 꼬마 새, 은혜와 딸]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 새들은 하늘과 바다를 오르내리며 자유롭게 날고 있다. 새들이 나는 '푸른 광장'은 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사복까지 뒷걸음치며 몰려 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명준이 뒤로 돌아서자 '푸른 광장'이 활짝 열려 있다고 했다. 그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 명준은 새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푸른 광장'을 발견한다. 부채의 비유 속에서 보자면, '푸른 광장'은 항상 거기[→ 부채의 바깥]에 있었지만, 부채 위 평면의 삶에 매인 명준으로서는 지금껏 보지 못한 어떤 것이었다.

자기[→ 명준]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 새들을 알아보기 되기 전까지, 명준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새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새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새들을]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 명준이 한 생각이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다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 죽음을 넘어서 온], 못 잊을 고운 각사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 명준이 작은 새를 향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다.]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 명준의 의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 명준]는 활짝 웃고 있다.

▶ 새들이 은혜와 그의 딸임을 깨달은 후 명준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를 그린 장면이다. 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탄 뒤로 지금까지,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며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불안해했는데, 비로소 그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 상당히 어렵고 상징성이 강한 대목이지만, 이 대목은 대략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지난 삶과 단절하고 중립국으로 가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명준은, 자신의 삶에서 은혜와 딸로 대표되는 사랑과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정도로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단락의 마지막 대목은, 그러한 발견을 통해 명준이 자신의 삶과 일종의 화해를 이루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 선장의 시점에서 본 서술이다.]

▶ 지금까지 명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서술의 초점이, 명준의 외부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일이야?" [→ 선장의 물음이다.]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 선원의 보고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 명준]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 명준이 타고 있던 배]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삼천 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명준의 실종] 물체처럼 뺄곡히 들어찬 남지나 바다의 혼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닷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 버린 모양이다.

▶ 다시 서술의 초점이 이동했다. 아마 명준은 바다에 몸을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바닷새들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명준에게 일어난 감정 변화와 바닷새들이 명준과 함께 사라졌다는 부분 등을 통해서, 독자들은 명준이 새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명준이 ‘푸른 광장’으로 새들과 함께 떠났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참고 자료

● 작품 전체 줄거리

철학과 3학년인 이명준은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월북하여 북한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경찰의 시달림을 받던 그는, 애인 윤애를 찾아가 여름 방학을 지나다 월북하게 된다. 북한에서 명준은 ‘로동신문’의 기자가 되어 접하게 된 북쪽의 현실에 실망하고, 부르주아처럼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큰 환멸을 느낀다. 명준은 야외극장 공사 인부로 자원했다가 부상을 입어 입원하고 있던 중, 국립 극장 소속 무용 단원 은혜와 사랑에 빠지지만 은혜는 모스크바로 떠나고 만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의 패색이 짙어 가던 낙동강 전선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명준은, 그곳에서 간호병으로 자원해 내려온 은혜를 만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한다.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힌 그는 판문점에서 남북한 대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중립국을 택한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그는 어미와 새끼 갈매기를 발견하고 그들이 은혜와 그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밤, 선장은 명준의 실종 보고를 받는다.

● 이해와 감상

- 1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진실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작품이다. 이념 갈등 속에서 좌절을 겪는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이념의 한계와 분단 상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2 작가는 ‘광장’이라는 사회적 삶의 공간과 ‘밀실’이라는 개인적 내면의 삶의 공간을 등장시키고 있다. ‘광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이념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위해 토론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밀실’은 개인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공간이다. 주인공은 남한의 광장에서 부패와 개인주의가 판치는 것을 인식하고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월북하게 되지만, 북한의 광장에서도 혁명의 허상과 부자유를 느끼고 자신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한다. 바람직한 사회는 광장이 건재하되 밀실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남과 북 어느 쪽도 제대로 된 광장과 밀실을 보여 주지 못한다.
- 3 한편 작품 마지막에서 명준은 어미와 새끼 새를 보고는 그것을 은혜와 자신의 딸로, 그리고 바다를 넓고 푸른 광장으로 여기고 바다에 뛰어든다. 이는 절망에 따른 자살이 아니라, 재생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은혜와 그의 딸이 어미와 새끼 새로 거듭난 바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지이자,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구성된 이상 사회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내포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인훈 작가는 작품의 결말에 대해 “현실에서 구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했던 것을 환상으로나마 현실화시키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명준의 투신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생명을 향한 투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감